



강동아트센터와 함께 하는
다가가는 **춤** 함께 하는 **춤** 즐거운 **춤**

2013.
06. 05 wed
08:00 PM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R석 20,000원 S석 10,000원



주최 · 주관 _ 강동아트센터
Gangdong Arts Center



티켓예매 _ 강동아트센터 02)440-0500 / 인터파크 1544-1555

1부

현대무용

1. Nothing

영화 '퐁네프의 연인들'의 미셸과 알렉스의 사랑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시력을 잃어가는 그녀... 사랑했던 줄리앙에 대한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셸.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알렉스. 그들의 사랑은 위태롭다. 집착인가? 거지들의 처량한 사랑일 뿐인 것인가. 사랑이외의 것은 모두 버리는 연인. 어쩌면 이들의 사랑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이 아닐까.

연출 _ 김현남

안무 _ 윤가연

한국체육대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실기와 재학
LeeK dance 단원

출연 _ 윤가연, 김태양, 유성희, 이용훈, 민창준



발레

2. Friendship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우정. 그 우정에 관한 감정들을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해보았다.

음악 _ Antonio Vivaldi, Johann Sebastian Bach

연출 _ 제임스 전

안무 _ 김지연

한국체육대학교 졸업
동대학원 이학박사
현 한국체육대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 강사

의상디자인 _ YUPPI(김유진)

출연 _ 김지연, 윤다연, 양승하, 조소연, 조민희, 손정아, 강민지, 문여숙, 이민지, 김예람화, 윤은숙, 최혜선, 유하영, 육지민, 이주영, 최일규, 하승수, 홍석경, 홍영택



2부

한국무용

3. 신을 향하여

본 작품은 신에게 집단적인 염원을 전달하는 집단의 힘을 통해 춤의 본질적(원시적)기능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다. 즉 춤을 통해 신에게 나아가고 또 신을 향한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집단을 향한 과정 속에서 서로 뭉치고 서로 힘을 합침으로써 결국 한국춤의 정서인 신명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내용은 신을 향한 제의식에 사용되어졌을 몸짓을 찾아 그 속에 인간의 마음을 담았고, 그 마음을 한국적 정서인 신명으로 표현하고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신명이란 신과의 접점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그 기운을 표현하기 위한 과정을 그린 것으로 전체 5개의 장으로 나눌 수 있다.

안무 _ 백현순

지도 _ 백민경

출연 _ 유지영, 박승희, 이세희, 김나정, 조나현, 강아람, 이정일, 박다솔, 이화진, 김지영, 김예진, 김소미, 김보경, 송나영, 황보민지, 백승례, 홍정희, 강정규, 김강민, 서진, 이혜민, 양미리, 심보라, 박혜주, 배자연, 정보현, 장민경, 이대환, 이진택, 김수호



현대무용

4. 사랑을 꿈꾸던 여인, 판틴

영화 '레미제라블' 중 행복한 사랑을 꿈꿨던 그녀, 판틴의 이야기를 하는 작품. 행복한 사랑을 꿈꾸는 그녀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남자, 그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그녀의 인생...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팔아넘기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그녀... 판틴...

연출 _ 김현남

안무 _ 정혜란

한국체육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무용학 석사 졸업
한국체육대학교 특강 강사

출연 _ 김호선, 이재선, 김선왕, 김다린, 임유은, 도서연, 차규화, 김규황, 유정민, 한규리, 정슬, 민창준, 심현정, 정혜란



1부

현대무용

1. Nothing

영화 '퐁네프의 연인들'의 미셸과 알렉스의 사랑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시력을 잃어가는 그녀... 사랑했던 줄리앙에 대한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셸.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알렉스. 그들의 사랑은 위태롭다. 집착인가? 거지들의 처량한 사랑일 뿐인 것인가. 사랑이외의 것은 모두 버리는 연인. 어쩌면 이들의 사랑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이 아닐까.

연출 _ 김현남

안무 _ 윤가연

한국체육대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실기와 재학
LeeK dance 단원

출연 _ 윤가연, 김태양, 유성희, 이용훈, 민창준



발레

2. Friendship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우정. 그 우정에 관한 감정들을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해보았다.

음악 _ Antonio Vivaldi, Johann Sebastian Bach

연출 _ 제임스 전

안무 _ 김지연

한국체육대학교 졸업
동대학원 이학박사
현 한국체육대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 강사

의상디자인 _ YUPPI(김유진)

출연 _ 김지연, 윤다연, 양승하, 조소연, 조민희, 손정아, 강민지, 문여숙, 이민지, 김예람화, 윤은숙, 최혜선, 유하영, 육지민, 이주영, 최일규, 하승수, 홍석경, 홍영택



2부

한국무용

3. 신을 향하여

본 작품은 신에게 집단적인 염원을 전달하는 집단의 힘을 통해 춤의 본질적(원시적)기능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다. 즉 춤을 통해 신에게 나아가고 또 신을 향한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집단을 향한 과정 속에서 서로 뭉치고 서로 힘을 합침으로써 결국 한국춤의 정서인 신명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내용은 신을 향한 제의식에 사용되어졌을 몸짓을 찾아 그 속에 인간의 마음을 담았고, 그 마음을 한국적 정서인 신명으로 표현하고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신명이란 신과의 접점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그 기운을 표현하기 위한 과정을 그린 것으로 전체 5개의 장으로 나눌 수 있다.

안무 _ 백현순

지도 _ 백민경

출연 _ 유지영, 박승희, 이세희, 김나정, 조나현, 강아람, 이정일, 박다슬, 이화진, 김지영, 김예진, 김소미, 김보경, 송나영, 황보민지, 백승례, 홍정희, 강정규, 김강민, 서진, 이혜민, 양미리, 심보라, 박혜주, 배자연, 정보현, 장민경, 이대환, 이진택, 김수호



현대무용

4. 사랑을 꿈꾸던 여인, 판틴

영화 '레미제라블' 중 행복한 사랑을 꿈꿨던 그녀, 판틴의 이야기를 하는 작품. 행복한 사랑을 꿈꾸는 그녀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남자, 그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그녀의 인생...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팔아넘기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그녀... 판틴...

연출 _ 김현남

안무 _ 정혜란

한국체육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무용학 석사 졸업
한국체육대학교 특강 강사

출연 _ 김호선, 이재선, 김선왕, 김다린, 임유은, 도서연, 차규화, 김규황, 유정민, 한규리, 정슬, 민창준, 심현정, 정혜란

